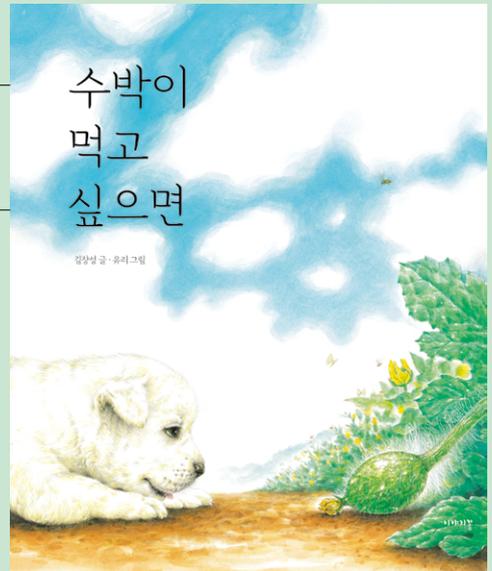


수박이 먹고 싶으면



권장 학년

초등 4~6학년

활용 도서

수박이 먹고 싶으면

김장성 글, 유리 그림 | 이야기꽃

작가 소개

글쓴이 김장성

그림책을 쓰고 만들고 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씨름》《골목에서 소리가 난다》《가슴 뭉클한 옛날이야기》 등 여러 그림책과 어린이책의 글을 썼으며, 《민들레는 민들레》(오현경 그림)로 2015년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았습니다.

그린이 유리

경기도 여주의 나지막한 숲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작품으로 《돼지 이야기》《대추 한 알》《강아지똥별》 등이 있으며, 《대추 한 알》로 2015년 한국출판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작품 이해 _수박 한 덩이에 담긴 수고와 정성 이야기

수박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이 먹고 싶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수박을 사먹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 수박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저마다 제 손으로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나누어 생산하고 바꾸어 쓰는, '분업'이라는 방법과 '화폐'라는 수단이 있으니까요. 분업과 화폐는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을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삶을 지탱하게 해 주는 사물과 사람들을 귀하고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그것들과 그이들을 얻고 부리겠다는 목표와 수단에 집착하게 하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종종 일하는 사람과 수고하는 과정 없이, 수단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 그림책은 우리가 쉽게 사먹는 수박을 얻기 위해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나아가 그것을 제대로 얻기 위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수고, 정성, 그리고 기다림의 한 시절

책 속의 농부는 이른 봄 쟁기질로 밭을 깨우고도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기를 기다렸다가, 살구꽃 필 무렵에야 구덩이를 파고 퇴비와 참흙을 켜켜이 채운 뒤 까만 수박씨 서너 개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촉촉이 물을 주지요. 이윽고 서너 개 싹이 나면 개중 실한 놈 하나만 남기고 두세 개를 솟아 냅니다. 그리고 남은 싹이 줄기를 뺀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밭을 드나들며 고단한 노동을 감내합니다. 뿌리가 숨을 쉬도록 북을 돋우고, 뺏어가는 줄기가 움켜쥐라고 벗짚을 고루 깔아 주며, 줄기가 힘을 모으게 결순을 질러 주고, 꽃가루받이하는 벌 나비 모여 들도록 끊임없이 나는 잡풀과 자꾸 생겨나는 진딧물을 일일이 손으로 뽑고 훑어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땀만큼 마음도 쏟습니다. 씨 뿌리고 흙 덮어줄 때는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조용조용 읊조려 주고, 싹을 낼 적엔 날마다 물을 주며 정성을 쏟되, 끝내는 수박 싹 제가 절로 난 줄 알도록 무심한 듯 모른 척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떡잎이 고개를 내밀면 아이처럼 기뻐해 주고, 싹을 솟아 낼 땐 안타까워하며 그런 만큼 남은 싹에 더욱 정성을 쏟아 줍니다. 그렇다고 마냥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너무 지치거나 더위를 먹지 않도록 가끔 원두막에 올라 시원한 미숫가루 물도 마시고 낮잠도 한 숨 잘 줄 아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농부는 수박이 익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고라니며 멧돼지며 동네 꼬맹이들이 설익은 몇 덩이를 추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농부는 그도 자연스런 과정이려니 생각하고 서운해 하거나 성내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 농부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줄무늬 또렷해지고 덩굴손 마르고 꽃자리 우묵해지고, 통통 두드려 맑은 소리 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게 영글대로 영근 수박이 이윽고 몸뚱이를 뒤척인다 싶을 때, 농부는 성큼성큼 밭으로 들어가 그놈을 푹 따내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돌려받는 한 시절

이제, 수박을 맛볼 차례지요. 농부는 손을 크게 저어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이! 이리들 오소!” 수박 먹고 싶은 이는 그 누구든, 엇그제 다툼 사이도 지나가는 길손도 반가이 불러 돌려앉힙니다. 혼자만 먹을라치면 그 고된 나날들이 얼마나 보람되랴 싶은 게지요. 그 마음이 수박의 마음마저 열게 합니다. 칼도 닿기 전에 썩! 제 몸을 열어 단물이 흐르는 속살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합니다. 땀과 정성 쏟아낸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게 합니다.

수단보다는 아름다운 과정을 위해

수박이 먹고 싶으면, 모든 사람이 농부처럼 수박을 심고 가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박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까지 쏟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수박농사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때에 맞춰 수박을 길러야겠지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책 속의 농부처럼 땀 흘리고 마음 쏟으며 정성껏 일할 줄 알고, 나누어 넉넉히 보람 키울 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나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즐거워질 테니까요.

수박농사 아닌 다른 일로 돈을 벌어 수박을 사먹는 사람이라도, 수박을 먹으며 그 달고 시원한 붉은 속살이 어떻게 차올랐는지, 거기에 누가 어떤 수고와 정성을 담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저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고마워하며 더 귀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수단이 아니라 아름다운 과정을 위해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대상 학년

초등 4~6학년

교과 역량

- 비판적·창의적 사고
- 의사소통 역량
- 문화 향유 역량
- 자료·정보 활용 역량
-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 자기 성찰·계발 역량

성취 기준

3~4학년 국어

- [읽기⑤]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 [쓰기⑤]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 [문학④]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문학⑤]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

5~6학년 국어

- [읽기①]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 [읽기⑤]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
- [읽기⑥]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 [쓰기⑥]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 [문학⑤]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관련 단원

독서단원과 통합하여 재구성 가능한 단원

-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 [국어 4-1] 5. 내가 만든 이야기
- [국어 4-2] 4. 이야기 속 세상
- [국어 4-2]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 [국어 5-1] 2. 작품을 감상해요
- [국어 5-1] 4. 글쓰기의 과정
- [국어 5-1] 9.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 [국어 5-2] 7.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 [국어 6-1] 2. 이야기를 간추려요
- [국어 6-2]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읽기 전

생각 열기

- 《수박이 먹고 싶으면》 함께 훑어보기
 - 내용 예상하기, 그림 살펴보기, 작가 살펴보기
-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경험 활성화하기
 - 예상한 내용과 관련한 경험 나누기

읽기 중

《수박이 먹고 싶으면》 그림책 읽어주기

- 음성, 발음, 속도, 화술의 변화, 감정 표현 등에 유의하며 읽어주기

그림책을 읽는 방법에는 교사가 읽어주기, 학생 혼자 읽기, 교사와 학생이 번갈아 읽기, 학생과 학생끼리 번갈아 읽기 등이 있다. 그림책은 매체 특성상 교사가 읽어주고 학생이 그림을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감상하는 것이 좋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 감상하기

*유튜브 [이야기꽃 작가가 읽어주는 그림책] 《수박이 먹고 싶으면》 활용

그림책 깊이 보기 · 듣기 · 읽기

- 제목, 표지, 면지를 보면서 자유롭게 말하기
 - 제목을 통해 그림책의 내용 짐작하기
 - 표지, 면지, 작가에 대한 느낌과 생각 말하기

표지를 펼쳐 앞표지와 뒤표지가 연결된 장면을 보여준다.

면지에 있는 다양한 수박 그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본다.

작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작품이 있는지 살펴본다.

- 선, 색, 모양, 배경, 표현 방법 살펴보기
 - 표현 방법, 재료 짐작하기
 - 시점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 찾아보기

*그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시점'(그려진 대상을 누가 어느 위치에서 보았는가 하는 문제.

소설의 시점처럼 1인칭, 3인칭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이 있다. 이 책의 그림들 가운데 농부가 수박을 잘라 펼치는 장면은 다른 장면들과 다른 시점으로 그려져 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본다.

읽기 후

- 부분 내용, 전체 내용 파악하기 ▶ **활동지①: 모둠활동**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 살펴보기

그림책을 뒤에서부터 보면서 인과관계를 살펴봐도 좋다.

- 궁금한 점 떠올리며 서로 질문하고 답하기

그림책 속 글과 그림의 의미를 생각하여 이야기 나누기

- 그림책 장면 자세히 보기 ▶ **활동지②**

- 장면에 따라 연상되는 낱말 쓰기

-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고르고 기억에 남는 이유 설명하기

- 나의 경험과 관련지어 이야기 나누기 ▶ **활동지③**

- 무엇을 이루기 위해 거쳤던 과정을 글로 쓰고 발표하기

내가 수고와 정성을 들여 이루었던 일의 아름다운 과정을 정리하고 함께 나눈다.

선생님의 경험과 관련한 예시 글을 읽어주면 더욱 좋다.

책 내용 간추리기

'요약하기'를 통해 책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선택활동

작은책 만들기, 색칠하기

활동지①②③ 전시하여 둘러보기

- 생각 나누기, 서로 칭찬·격려하기

'함께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나의 독서 활동 점검하기

교과서 독서단원 <정리하기 : 독서 습관 기르기> 자료 활용

더 찾아 읽기

주제, 작가, 소재, 장르 등과 연관 지어 다양한 책을 찾아보고 독서 계획을 세운다.

책 내용을 알아보아요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봅시다.

2. 다음 장면의 의미를 제시된 낱말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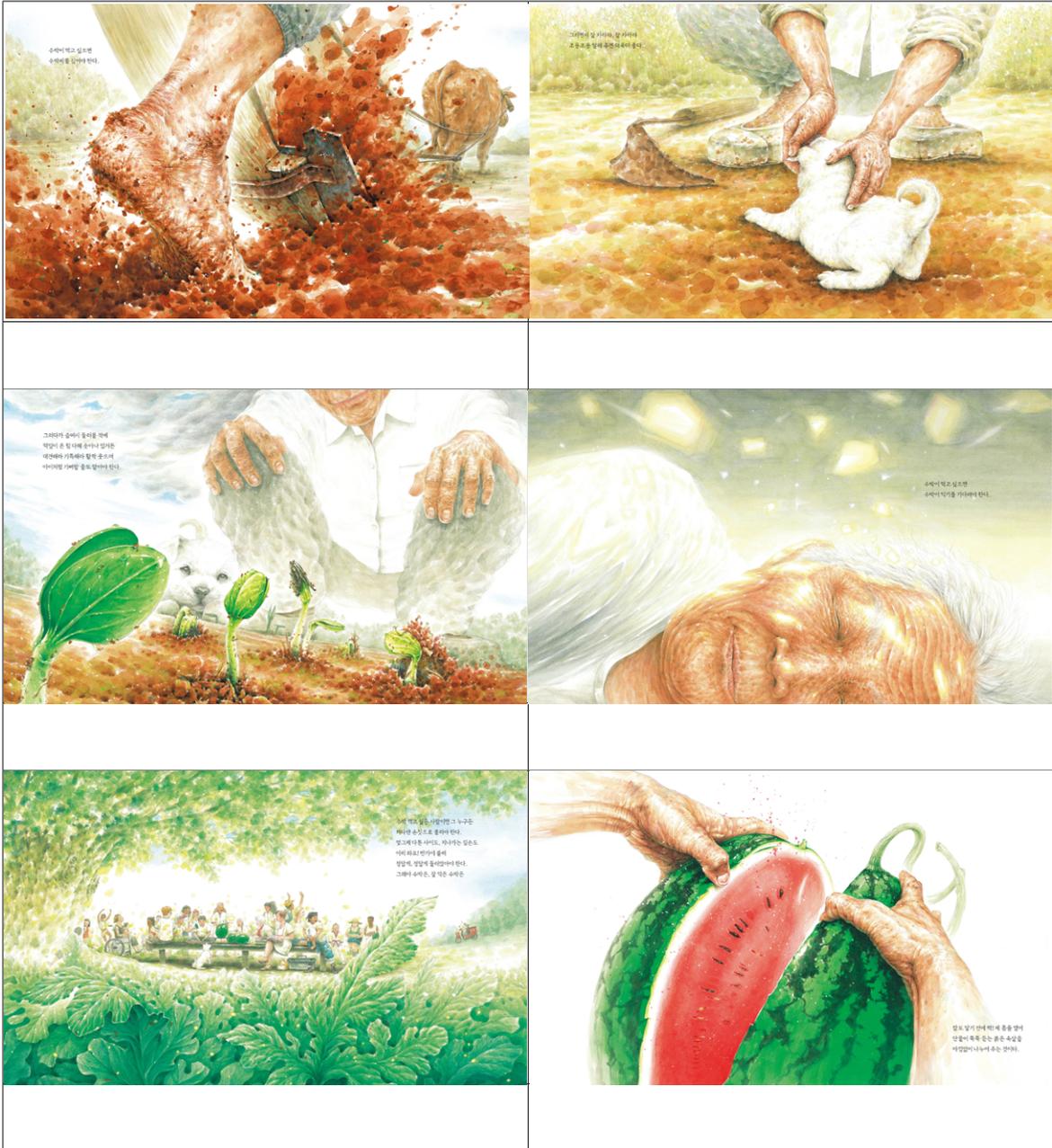
철조망, 꽃, 피다, 기다리다

3. 그림책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글의 의미를 생각하여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다.’

그림책 장면에서 연상되는 낱말을 쓰고 이야기 나누기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고르고 그 이유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나의 경험과 관련 지어 글을 써 보아요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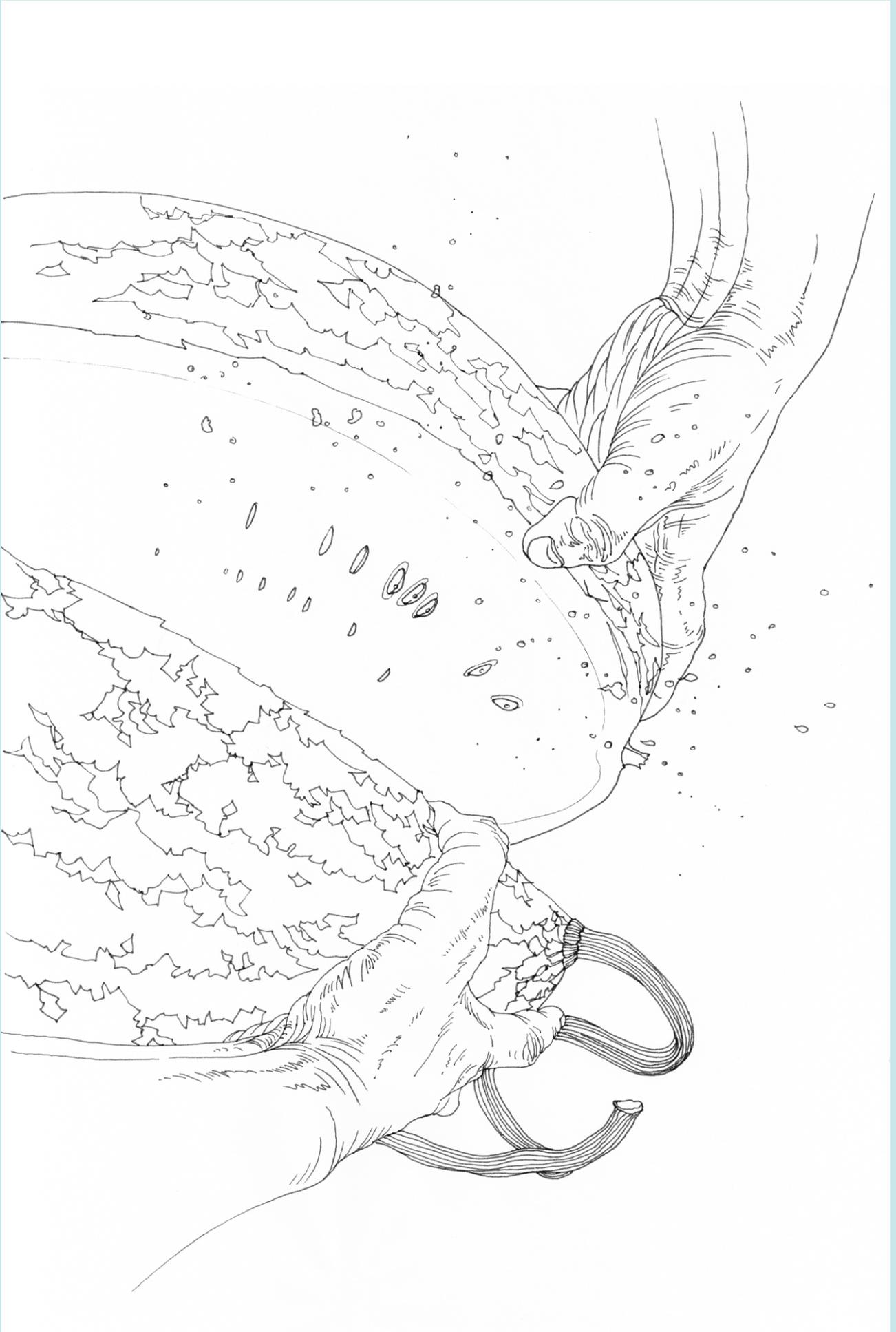
내가 수고와 정성을 들여 이루었던 일의 과정을 정리하여 글로 써 봅시다.
또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정해 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을
생각하여 글로 써 봅시다.

제목 : 이(가) (하)고 싶으면

뒤죽박죽되어 있는 장면들을 오려
원래 순서대로 붙여 작은 책을 만들어보세요.



▶ 이미지 원본은 이야기꽃 출판사 홈페이지(www.iyagikot.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A3 가로로 출력)



▶그림책에서 이 장면이 다른 장면과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기)

